



<9> 낙안읍성 둘레길



낙안읍성은 사람 사는 범재가 물씬 나는 민속마을이다.

경기도 용인의 한국 민속마을처럼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마을이 아니라 주민들이 직접 살고 있기 때문이다.

성 안팎에는 기와집과 초가집 등 108가구에 300여 명의 주민이 아궁이에 불을 피워 밤을 짓고, 밭을 일구며 살아가고 있다. 낙안읍성은 마을을 둘러싼 성곽과 관아, 민가를 오롯이 간직한 전통고을로, 현재까지도 후손들이 살아가며 마을로서의 기능을 이어가고 있다. 낙안군악과 공동체 제의, 판소리 등 무형유산의 전승지이기도 하다.

동문에서 내려다 본 읍성 내 마을은 가지런하고 깨끗하다.

조선시대 지방계획도시였던 만큼 잘 정돈된 느낌이다. 동문을 기준으로 우측으로는 관가가, 좌측으로는 민가가 자리하고 있다. 겨우내 이영을 새로 깔아서인지 지붕 색깔이 더 또렷하다.

성 둘레는 1410m이다. 성곽 위를 한 바퀴 돌고 동현과 객사, 동네 고샅길을 둘러봐 한 시간 정도면 너끈하다.

사사사찰 풍광도 좋아 남녀노소 누구라도 산책하기에 더 없이 좋은 코스다. 봄이면 개나리·벚꽃 등 봄꽃이 흐드러지고, 가을이면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리고, 초가지붕엔 탑스런 밭들이 이리저리 링군다.

그래서 계절에 상관이 없이 관광객이 찾는지도 모른다.

낙안읍성 일주는 입구인 동문에서부터 시작한다. 우선 성과 위를 한 바퀴 돌고, 객사를 거쳐 낙안읍성 민속마을의 속내를 두루 보는 코스가 좋다.

동문을 출발해 북쪽 성벽을 거쳐 서문, 남문, 동문을 있는 성벽 일주를 끝낸 뒤 다시 동문을 출발해 동현과 자료관을 거쳐 마을 길로 접어들면 된다. 총 거리는 2.5km·안팎밖에 되지 않지만, 여기 저기 기웃거리는 재미가 쏠쏠해 반나절은 잡아야 한다.

성벽을 타고 북쪽 성벽으로 가는 길에 금천산(金錢山·667.9m)이 한눈에 들어온다. 일명 '로또' 산이라고도 불린다. 금과 돈이 많은 산이라는 뜻으로, 이 때문에 순천에서 로또복권 1등이 많이 배출됐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있다.

객사와 동현 뒤를 지나 유틸리티를 지나면 낙안읍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망 포인트다. 경계가 이어져



동네 돌담 고샅길 기웃거리는 재미도 쏠쏠

대장간 체험하고 장터 주막서 동동주 한사발

600년으로 추정되는 노거수 32그루가 가부좌를 틀고 낙안읍성의 역사를 지켜왔다. 이중 15그루는 지방기념물로 지정됐다.

낙안읍성에는 북문이 없다. 짐승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북문을 만들지 않았다고 한다.

서문을 지나 성 서남쪽 성벽에 다다르면 대나무 숲을 만날 수 있다. '빈길등(燈)'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조선 태조 6년 왜구가 침입하자 의병을 일으켜 토성을 쌓고 왜구를 토벌한 이 고장 출신 김빈길 장군의 이름을 따서 지었다.

대나무 숲은 전쟁 때 죽창과 바구니 등을 제작하기 위해 조성됐다고 한다. 빈길등에서 서면 낙안읍성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전망 포인트다. 동현

에는 초가지붕이 한 쪽의 풍경화를 보는 듯하다.

남쪽 성벽은 낙안읍성 주민들의 살림살이를 염불 수는 재미가 있다. 마당에 백구가 뛰놀고 꼬맹이·호미 등 전통 농기구 등이 햇살을 품은 황토 벽에 가지런히 걸려있다. 마을 안으로 내려가고 싶은 충동을 참고 남쪽 성벽을 계속해서 걸으면 출발지인 동문에 도착한다.

성곽 한 바퀴를 모두 돌고 나면, 이제 동네 고샅길을 거닐 차례다. 동문에서 마을 주 도로를 따라 객사와 동현·낙민루, 낙민관 등을 먼저 둘러본다. 주도로를 따라 들어가면 임경업 장군 선정비각을 만난다. 1626년 서른둘의 임경업 장군은 이곳에 군수로 부임해 백성들을 따뜻하게 보살폈다. 동현

옆의 낙안읍성 자료실은 낙안읍성 주민들의 과거 생활상을 볼 수 있다. 관아를 모두 둘러본 뒤에는 본격적으로 마을 탐방에 나선다.

마을 길은 아름다운 곡선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이 절경이다. 동네 고샅길을 기웃거리는 재미가 쏠쏠하다. 오리들이 골목 도랑들에서 줄을 지어 이동하고, 순한 눈의 누렁이가 파스한 계단을 쏴며 조는 모습도 놓치기 아깝다.

마을 빨래터엔 노란 개나리가 꽃을 희우려고 애를 쓰고 있다. 마을을 여기저기 돌아보면 체험관도 상당하다.

대장간 체험에서부터 목공에 체험, 도자기 체험, 농기구 체험, 짚 물 공예 등의 많은 체험프로그램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다. 조오선 문화체험사는 "성벽과 마을 탐방이 끝나면 장터 주막에서 도토리묵과 동동주 한사발 맛보면 낙안읍성의 맛을 모두 느낄 수 있다"라며 "이마저도 아쉬움이 남는다면 마을 안 민박집에서 하룻밤 묵으며 고향마을의 밤 정취에 폭 젖어보는 것도 좋다"고 설명했다.

/최권일기자 ck@kwangju.co.kr

▲ 순천 낙안읍성 성곽 둘레는 총 1410m다. 초가지붕이 겹겹이 쌓인 마을을 내려다 보고, 성 외곽의 넓은 들녘을 바라보며 가볍게 산책하기에 안성맞춤이다. /김진수기자 jeans@

▼ 성곽을 걸은 뒤 관아와 마을 고샅길을 걸으면 낙안읍성 주민들의 생활상과 한국 고유의 토속적인 민속 경관을 엿볼 수 있다. 사진은 동현 전경.



SCREEN GOLF

두암골프존

연중무휴 가격인하!

18홀 13,000원
(오전12시 티업까지 10,000원)

- 오전 요금은 12:00시까지 티업시 적용합니다.
- 유료코스 이용시에는 고객님께서 2,000원을 부담합니다.
- 골프존 Real 18홀 17,000원 (추가부담 없음)

필드의 느낌을 그대로...
실전과 같은 시뮬레이션 골프연습장

만나는 순간,
여러분께 리더의 자부심을 약속합니다

편안하고쾌적한 최고시설 5개룸
전타석 스윙플레이트
원손타석(와이드 화면) 구비

단체경기(8~10인)를 위한 OPEN형 룸
골프채, 신발, 장 부료대여
오전은 12시 티업까지 적용(토,일제외)

영업시간 오전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매니아 고객님을 위한 넉넉한 라커(무료)

두암타운 사거리에서 순환도로쪽 70m [햇살 5층]
예약 ☎ 234-9999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프리모 남녀가발

가발 초슬립!!

타사제품 A/S 및 관리 헌영

가격 파괴 50~ 만원

최상품을 최저가로 최고의 만족을 드립니다.

귀하의 품위와 인격을 높혀주는 영원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화상 두피함몰등 가발의 모든 것 해결함
타사 제품도 신기술로 보완시술 가능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상가 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재 011-607-5330

지도: 빅마트, 나주방향, 구대동고, SK주유소, 대산프리모, 대산프리모가발